

DuPont, 한국투자 “긍정적 고려”

손학규 경기도지사 미국 방문 ... 국내 LCD 컬러필터 · 나노기술 관심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가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해 실무진과 함께 미국을 방문중인 가운데 DuPont이 경기도 내 첨단업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손학규 지사는 미국 도착 직후인 4월18일 오후(현지시각) 델라웨어주 밀밍턴시에서 그랜저 부사장 등 DuPont 경영진을 만났으며 DuPont 관계자들은 접경지역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안보상 문제,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원활한 협조 여부,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DuPont 관계자는 “경기도 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초극세사인 나노섬유 기술에 매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조만간 LCD 핵심부품인 컬러필터 기술과 관련한 한국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DuPont의 아시아 경영전략에서 한국, 중국, 타이완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며, 특히 한국의 LCD, 나노기술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지사는 4월19일 오전 DuPont 홀리데이 회장을 다시 만나 경기도 투자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DuPont 실무 경영진을 만나 협의한 결과 경기도 내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홀리데이 회장을 만나면 투자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지사는 DuPont 참석자들에게 과주 LG필립스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한국의 안보상황이 외국인 투자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글로벌기업의 한국투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04/20>